

I. 시작하는 말

무화과의 집이라는 베다니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란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언제 맺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바라보시며 저주하셨습니다. 나아가 성전에 가서서도 기존에 진행되던 장사를 없앴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 속에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큰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II. 중심 말씀

1. 성경을 보는 눈이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화과나무의 죽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으신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무 하나의 열매 없음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과 죽음, 열매 있음과 없음을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 죽는가의 문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큰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반대로 전혀 그 뜻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눔 질문) _____

2.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은 열매는 윤리적인 착함과 온전함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율법을 지키며 윤리적으로는 착할테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그들이 맺을 열매에 집중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싶은 열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나 예배, 찬양 모두 믿음이 없다면 시간낭비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 진짜 주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장사하는 모습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나눔 질문) _____

3. 지금은 지금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상품성 있는 무화과가 아닌 상품성 없는 무화과를 보고싶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무화과는 굶주린 나그네들이 오고가며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벽한 믿음의 열매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눔 질문) _____

III. 정리하는 말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남과 비교하는 믿음이 아닌 내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을 바라는가입니다. 주님을 믿고 바라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임재찬양

-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 2)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 마음문 열기 : 한 주간 감사 나누기, 게임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찬송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찬202)

- 1)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 2)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댄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 3)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 4) 주 예수 날 사랑 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 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 5) 주 예수 날 사랑 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후렴)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 3)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 기도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